"조금씩 연습한 실력이라 부끄럽지만 아이들과 함께해 행복했다"

정읍시청 큰별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 가져

정읍시청 큰별어린이집은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어린이집 강당에서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올 한해 1년을 담은 영상 상영과 부모 참 여 수업인'아빠 책 읽어주세요'활동 내용 등의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또 교사들이 준비한 우크렐 레 연주에 맞추어 만2세 아이들(18명)이 율동과 캐 롤송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교사들은 "교사들은 일과가 끝나고 조금씩 연습 한 실력이라 부끄럽지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마 음으로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전했다.

특히 행사는 김생기 시장이 산타복장을 하고 '메 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와 함께 강당에서 들어서 면서 절정에 달했다. 아이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로 화답하며 김시장을 반겼다.

김시장은 "산타클로스처럼 아이들과 주변의 어려 운 이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을 보내길 바란다"며 선물을 전하고 기념사진도 함 께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읍시청 큰별어린이집은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지난 21일 어린이집 강당에서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행시를 가졌

지난 2012년 9월 문을 연 큰별어린이집은 정읍시 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현재 33명의 아이들이 재원

론 높은 신뢰감 구축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 토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향상과 밝은 직장 분위 하다. 직원들의 육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줌은 물 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는 지난 20 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

이날 봉사활동은 연말연시 사회적 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을 찾아 따 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사랑의 연 탄나눔 봉사로 전북청 경무과 직원 25명이 참석했다.



또한 총 1,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사랑과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하는 시 간을 가졌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작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 1016 (위560-912 전주시 완산국]간) 7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	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OITILL 040 0000 0074	1 IOITH 1 000 0000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선수시사 010-9645-4113	송양시사 (개안9086-6874 인후지사 246-6855	담원시자 632~3996 김제지사 547~8855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00:4:4 4:4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010-9645-4113 삼천지사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547-8855 완주지사 246-6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군산대 주종재 교수, 미룡동 주민에 사랑의 선물 전달

군산대 주종재(61·식품영양학과) 교수가 21일 군산시 미룡동 주민 300 여 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주 교수는 사재 2000만원을 털어 전 기장판 100개와 행복꾸러미 200개를 준비했다. 행복꾸러미(15kg)는 라면 과 부침가루, 미역, 김, 참치캔, 참기 름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사랑의 선 물 전달식에는 주 교수의 제자들도



동참해 사제동행의 의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식품영영학과 2~3학년이 배달부 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15명의 학생들은 빨간 산타모자를 쓰고 행복꾸러미를 홀로 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달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7월에도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에 기입한 바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던 선친의 뜻을 받들고 싶다" 며 1억여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쾌척했었다.

주 교수는 "기부는 실천할수록 자신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중독인 것 같다" 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 끼니를 걱정하 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뻗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대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진안사랑장학재단에 100만원 전달

대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회장 정양우)는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100만원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에도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 는 대전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 회원들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후배들에게 학 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회비를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싶 /진안=우태만 기자 다"고 전했다.

임실청년회의소 이승재 신임 회장 선출

"JC 기본이념을 근거로 회원들의 자기역량개발 도모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18년도 임실청년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이승재 (42.우진냉동 대표·**시진**)신임 회장의 다짐이다.

이 회장은 또 "먼저 회장에 취임하기까지 물심양 면으로 도움을 준 임장일 직전회장과 역대 회장, 특우회 선배에게 감사드린다"면서"중책을 맡게 된 만큼 선배들이 쌓아놓은 금자탑에 흠이 되지 않도

록 언행일치와 소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실JC 조직의 위상과 회원을 먼저 생각하며 내실을 다지 겠다"면서" JC활동을 통해 배워 온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리더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히 "2018년도에는 '긍정에 힘으로 함께하는 임실JC'이라 는 슬로건 아래 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면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2018년도 임실JC를 이끌 이승재 회장은 지난 2004년에 임실청년회의소 에 가입해 사무차장을 비롯 재정이사, 감사, 외무부회장, 내무부회장, 상 임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임실JC 최우수신입회원상, 한국JC 중앙회장 특 별표창과 박민수 국회의원 , 전북도 도지사, 임실군의장, 임실군수 등 다

한편 이승재 회장과 함께 2018년도 임실청년회의소를 이끌어 갈 회장 단에는 서승구 상임부회장, 김태호 내무부회장, 김종현 외무부회장과 박 상우, 한상민 감사이다.

노인회 부안군지회,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간담회 가져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회장 김봉철)는 지난 20일 부안컨벤션웨딩홀에서 노인사 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 신 38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및 간담회"를 가졌다.

그간 (사)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715명의 어르신을 선발하여,



노노케어, 경로당관리원, 무료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나눔이 있는 채움 밥상 등 8개 사업에 배치하였고, 이번 간담회는 추가로 선발된 어르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 김종규 부안군수는 격려시에서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해선 건강, 경제력, 사회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가장 적합한 것은 노인 일자리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노인대학, 경로당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군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를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 /부안=이옥수 기자 위탁하여 14억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고객 인권보호 · 성 비위 예방 나서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청문감사실은 여직원과 일대일 대화의 시간 을 갖고 직장에서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 내부고객의 인권보호와 성 비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담 없는 분위기 속에 진솔한 대화로 여성 경찰관으로서의 지부심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며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웃음이 끊이 지 않는 직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문선미 순경은 "선배들이 자상하고 업무를 자세히 가르쳐줘 즐겁게 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후배들이 들어오면 내가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후 배들에게 이어 줄 수 있게 열심히 업무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수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게 모든 경찰관의 임무인 민큼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